

생명의 주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23)

성경말씀: 눅7:11-16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6장에서 제자들 선택, 지침, 7장부터 공동 사역 시작
백부장의 종 고침, 주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 자신의 철저히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함(6-8).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병도, 마귀도, 거리 문제없다.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10절: 종이 온전히 회복됨. 99%가 아니라 온전히 100% 회복됨.

배경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히2:14-15).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 사람 편에서는 죽음 극복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무의미, 이것 말고는 사실 다 무의미

공생애 사역 시작과 더불어 핵심 목표를 이루심, 나인 도시의 청년을 살림, <생명의 통치자 그리스도>
11절 백부장 사건 뒤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감,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킬로미터, 나사렛 부근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아마 새벽부터 8시간 정도 걸어서 오후 3-4시경에 도착함

어떤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요4장의 사마리아 방문(요4:4), 유대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통과

12절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도시 밖 매장터로 나가고 있음.

도시의 많은 사람들, 돈을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 피리, 심벌즈 등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무리와 죽음의 사자를 따르는 슬픔의 무리가 도시의 문에서 맞닥쳤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무리 중 하나에 속해 있다(승리, 패배).

주님 안에 있으면 산 자들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묘지로 들어간다. 당신은 어떤가?
특히 슬픔에 잠겨 비통한 여인, 아무도 없다. 남편도 다른 자식도 없다. 절망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지만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주변의 한 성도, 아들을 잃고 늘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더욱이 이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요, 자식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

13절 주님께서 그녀를 붙잡히 여김: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정

마9:36, 목자 없이 흩어진 무리를 보시고

마14:14, 오병이어 기적, 병을 고쳐 주심, 오병 이어

마20:34: 예리고에서 눈 먼 두 사람, 눈을 열어 줌

눅15:20, 탕자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심정이 있는가? 주님의 섬김의 대상, 우리도 마찬가지

14절 “울지 말라”하시고 관에 손을 댄, 이것 자체가 울법을 범하는 것임. 사람들이 멈추어 섬
주님은 울법 너머의 사랑을 베푸신다.

세리 마태,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 “나는 희생물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마9:13).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곧바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함.

어머니에게 넘겨줌.

주님의 사역에서 부활의 큰 기적은 말씀만으로 이루신다. 실로암 소경 사건 등

막5:41, 야이로의 딸, 12살, 방금 죽음, 그녀의 집에서,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눅7장의 나인 성 청년, 무덤으로 실려 가는 중에

요11:43의 나사로, 나이가 든 어른, 죽은 지 나흘, 냄새가 남,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창조함.

온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 되었어도 문제가 없다.

심지어 죽은 자도 그분의 말을 듣는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눅

20:38).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명의 독생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하나님). 과부의 독생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을 고쳐 주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것도 그분의 독생자를(요3:16).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심지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다(엡2:1). 다시 태어나야 한다.

15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함.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배가 고파요. 어머니 피곤해 보이네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다.

살전4:16-18, “일어나라. 올라오라” 이로써 성도들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만다.

산에 묻힌 자들, 바다에 빠져 익사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성도들의 모든 원자들이 움직여
부활한 몸을 이룬다. 몸의 부활, 영화로운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질병, 고통 No!)

고전15:51-54, 57-58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와 엘리야, 특히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함

900년 전에 엘리야는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감(왕상17:19-24). 과부 여인과 그의 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음,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기를 그를 살림.

21절: 몸을 세 번 펴서 아이 위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 예수님처럼 명령하지 못함

아이가 살아남: 24절 여인의 말

나인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너무나 무서웠다. 처음 보는 일,

그리고는 영광을 돌렸다.

그들의 말: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16).

신18:18-19,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마1:23). 눅1:68

결론

우리는 지금도 말 못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있는가?

육적, 재정적, 영적 신음 소리, 교제와 섬김

찬송가 256장, 석진영 여사, 6.25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절망과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운 애절한 호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어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으로 사망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

우리의 죽을 몸을 일으키시는 권능을 믿는가? “일어나라. 올라오라” 하시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선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